

이 자료는 즉시배포용 입니다.



연구원 보도자료 (총 2 매)

자료문의:
중소형선박기술센터

연락처 : 김낙현팀장
(063-465-8424)



KOMERI,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본격 착수

- 국내 주력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한 수소경제 전환 핵심 기술 실증 돌입
- 지자체·정부·기업 공동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기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원장 배정철, 이하 KOMERI)은 7월 7일(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중소형선박기술센터에서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대규모·장기 암모니아 기반 수소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방재시험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으며,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관·연이 협력하는 국내 탄소 중립 및 수소경제 전환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KOMERI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국비 100억, 도비/시비 67억, 민자 3억)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KOMERI 중소형선박기술센터 내에 암모니아 저장 및 공급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실증 플랫폼을 조성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사업에서는 KOMERI가 구축한 암모니아 저장·공급 설비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가 암모니아 크래커 시스템의 설계와 통합 운영 △현대로템이 시스템의 설계·제작·설치 △방재시험연구원이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제도적 안정성도 확보된 상태다.

KOMERI 조민호본부장은 “암모니아는 저장·운송 효율성이 뛰어난 차세대 수소 캐리어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기술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은 지역 내 기자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MERI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협력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와 실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협약식 사진 >